

안산문화재단

2022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연예술 쇼케이스 심의 총평

“지역적 특징과 독창성이 돋보인 작품의 발견”

2022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연예술 쇼케이스 공모에서는 극단 송곳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문화라는 소재에서는 안산의 특수한 지역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으며, ‘힙합’이라는 소재가 연극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독창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의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은 안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이를 통해 안산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품개발(1단계)과 신작초연(2단계)으로 단계별 구조를 갖춘 사업으로, 본 평가는 1단계 작품개발 쇼케이스 심사에 해당합니다. 올해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연 부문에는 총 16개의 단체가 지원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단계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 결과 3개 단체가 쇼케이스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에 앞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모든 단체에 동일하게 20분간의 실연시간이 주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쇼케이스에 앞서 모든 단체에 20분간의 준비 시간이 주어졌으며, 면접 심사는 쇼케이스 후 1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심의는 작품의 구성(50%)과 쇼케이스 역량(50%),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먼저 작품의 구성면에서는 내용이나 구성의 완성도, 주제 의식, 독창성, 발전 가능성을 두루 살펴보았으며, 쇼케이스 역량에서는 창작진과 출연진의 기량과 실행역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3월의 뮤지컬 <몽유>와 극단 송곳의 연극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디스이즈잇의 년버벌연극 <하여가>의 쇼케이스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13월의 <몽유>는 고전소설 <운명전>을 모티프로 한 작품입니다. 먼저 <운명전>은 기성 창작자들이 도전했던 작품 중 하나로, 연극(상사몽)을 비롯해 가무악극(몽유도원도), 오페라(운영), 음악극(운영전) 등 다양한 장르에서 무대화되었습니다. 원작의 무대화와 관련해 독창성을 담보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연 심의에서는 총 18장으로 그 중 3개의 장을 선보였습니다. 3개의 장만으론 작품 전체의 완성도나 작품의 주제 의식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주제 의식과 관련해, 면접 심사를 통해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였으나 이 또한 독창적이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쇼케이스에서 운영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없던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향후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시어 작품을 창작한다면,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으로 극단 송곳의 연극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는 다문화가정의 소년을 주인공으로 하여, '우리 안의 인종차별'을 꼬집는 작품입니다. 다문화라는 소재에서 안산의 특수한 지역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힙합'이라는 소재가 연극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인종차별, 학교폭력과 관련해 1999년과 2022년의 시차에서 발생하는 온도차는 앞으로 작품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단체가 고민해야 할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향후 무대화 과정에서 '블랙페이스' 등 재현의 윤리성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숙제를 해결하고, 비보잉이나 디제잉, 그라피티 등 다른 힙합의 요소들을 공연에 삽입한다면, 본 사업 이후 유통까지 기대할 만한 작품이라고 추측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이즈잇의 <하여가>는 태종을 주인공으로 왕자의 난과 피의 숙청 등을 보이는 작품으로, 보다 핵심은 이러한 서사보다 장면화에 있어 보입니다. 디스이즈잇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미디어 퍼포먼스를 특징으로 하는 단체로, 이번 쇼케이스에서 단체의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력에 있어서는 미디어 퍼포먼스 단체 중 선두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2m LED용과 EL WIRE가 장착된 의상을 입은 퍼포머가 벌이는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적 장면이 단체의 이전 작품에서 이용된 바 있는 점은 아쉽습니다. 아울러 이런 장면과 서사를 보이기 위해 사용된 일부 영상 사이에 수준 차가 보이는 점 역시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이즈잇의 유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2022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연예술 쇼케이스 공모에서는 극단 송곳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한 편이 선정되었습니다. <몽유>와 <하여가>의 경우 이번 공모에서는 선정하지 못했지만, 다른 지원사업에서는 선정될 가능성이 큰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여기에서 단념하지 마시고, 작품을 발전시켜 다른 무대에서라도 뵙길 희망합니다.

심의위원

이안재 대표 / 공연평론가	김일송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미래전략실장	신동호
적당히 무브먼트 대표 / 공연평론가	이지은